

내년 지방선거 누가 뛰나

■ 광주 동구청장

호남정치 1번지... 민주 공천따기 심혈

‘호남 정치 1번지’ 광주 동구는 민주당의 심장부다. 그런 탓에 내년 6월2일 치러지는 본선보다는 민주당 공천권을 둘러싼 예비 후보들간 물밑 경쟁이 더 치열하다. 특히 동구는 민주당 최고위원인 박주선 의원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각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박 의원의 친분을 내세우고 있다.

유대명(66) 현 청장의 3선 성공 여부가 관건이다. 현역 프리미엄을 등에 업은 유 청장은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다. 매니페스트(선거 공약) 이행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 약속 잘 지키는 단체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청장의 대항마로는 재선인 손재홍(49) 광주시의원이 손꼽히고 있다. ‘젊은 인물론’을 내세운 손 의원은 왕성한 의정활동 등을 펼쳐 의정대상 최고 의원상을 휩쓰는 등 열정이 돋보인다.

풍부한 행정 경험 등을 내세우며 보폭을 넓혀가고 있는 하승안(58) 전 보성군수도 박 의원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어 주목된다.

또 동구에서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쳐며 3선 의원으로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조



유대명 66·민 동구청장, 손재홍 49·민 광주시의원, 조영복 60·민 전 동구회의장



하승안 58·민 전 보성군수, 안병강 47·노 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 김경열 50·무 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

영복(60) 전 동구의회 의장도 공천권을 따내기 위해 지역을 누비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김경열(50)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민노당에서는 안병강(47) 전 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본부장이 민주당 후보들에 맞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 광주 서구청장

전·현직 청장 재대결 최대 불거리

광주 서구는 전·현직 청장의 재대결이 최대 불거리다. 전주인(61) 현 청장이 재선을, 김종식(61) 전 청장은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전 청장은 9급부터 2급 공무원을 지내는 동안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토대로 주민 편의 행정 서비스를 펼쳐 원만하고 친근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에 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선거에선 열린우리당-민주당의 분열이 가져온 ‘바람’ 탓에 패배했다며 설욕을 위해 절치부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 모두 청장을 거치면서 다진 조직력이 탄탄해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전직 광주시의원들도 공천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과 친분이 두터운 박영수(61) 전 시의원은 정 의원의 복당과 그 이후 당 권력구도 재편에 따라 전·현직 구청장에 견줄 대항마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서구갑 조영택 의원계로 분류되는 김선욱(51) 전 시의원도 출마 의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도권 승리를 위한 호



전주인 61·민 서구청장, 김선욱 51·민 전 광주시의원, 김종식 61·민 전 서구청장



박영수 61·민 전 광주시의원, 정동영 45·민 서구갑 당 협회위원장, 강기수 57·노 전 광주시의원

남 개혁공천 대상으로 광주 서구가 오르내리고 있어 ‘제3 인물의 전략공천’ 여부도 주목된다.

한나라당에서는 정용환(45) 서구갑 당 협회위원장이 나설 태세다.

민노당은 강기수(57) 광주시당 위원장을 내세워 지난 4·29 재선거에서 일어난 민노당 불풍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남구청장

황청장 3선 도전에 입지자 붐물

광주 남구청장 선거구도는 아직 안갯속이다. 민주당 공천을 놓고 강은태 의원과 이윤정 남구위원장의 출마가 판을 흔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3선 도전에 나선 황일봉 현 청장, 지역 현역의원인 강 의원의 대리인, 이 위원장의 대리인 등 3파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호사랑 남구’를 브랜드로 특화시킨 황일봉(52) 청장은 3선을 통해 ‘호사랑 도시’를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황 청장은 재선을 거치면서 다져놓은 조직력과 인지도가 강점이다.

황 청장의 3선에 맞설 인물로는 강 의원의 측근 유동국(47) 강은태 의원 총괄본부장과 최영호(44) 전 광주시의원, 정재수(49) 남구재향군인회장이 거론되고 있다. 이윤정 위원장계에서는 나종천(66) 광주시의원이 꼽힌다.



황일봉 52·민 남구청장, 김화진 51·민 전 남구청장후보, 나종천 66·민 광주시의원, 박용권 59·민 전 남구청장, 위성부 49·민 전 남구시무차장



정재훈 53·민 동아병원장, 정재수 49·무 남구재향군인회장, 이이현 43·노 남구위원장, 유동국 47·무 강은태 총괄본부장, 최영호 44·무 전 광주시의원

이밖에 김화진(50) 전 열린우리당 남구청장 후보, 정재훈(53) 동아병원 원장, 박용권(59) 전 남구청장도 출마 뜻을 내비치고 있고, 위성부(49) 민주당 남구시당 사무처장의 이름도 오르내리고 있다.

민노당에서는 이이현(43) 남구 위원장이 준비 중이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광주 북구청장

‘40대 기수론’ 내전 젊은 피 대거 도전

송광운(56) 현 청장의 연임 가도에 이형석(48) 전 광주시의회 의장이 대항마로 나선 형국이다. 여기에 ‘40대 기수론’을 내걸고 ‘젊은 피’들이 대거 선거판에 뛰어들어 전망이다.

가장 큰 관심사는 송 청장의 재선 여부. 송 청장은 전남도 행정부지사를 지낸 정통 행정관료로 행정의 전문성과 중앙정부의 두터운 인맥이 강점이다. 다만 송 청장은 지난 2006년 선거에서 구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지만 공천에 영향력을 가진 현 지역구 국회의원 2명이 모두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점이 걸려온 대목이다.

송 청장에 맞설 라이벌로는 이형석 전 의장이 거론된다. 2006년 선거에 출마했던 이 전 의장은 시의회 의장과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을 지내면서 인지도와 행정 경험을 갖춘데다, 지역구 의원들과 같은 열린우리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해빙만하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탄탄한 조직력을 갖춘 진선기(45) 광주시의회 부의장과 오형근(47) 민주당 보건복지특별위 부위원장, 최경주(49) 전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이 ‘40대



송광운 56·민 북구청장, 오형근 47·민 당 보건복지특별위 부위원장, 이형석 48·민 전 광주시의회 의장, 진선기 45·민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최경주 49·민 전 광주시당위원장, 서세일 66·민 북갑 당협위원장, 오창규 42·노 아파트북구지회장, 변명환 63·무 전 광주시의장

기수론’을 내걸고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강기정의 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두고 주창해 온 ‘물갈이론’과 어떻게 상응할지 주목된다. 변명환(63) 전 광주시의회 의장으로 자천타천으로 거론되고 있다.

한나라당에서는 서세일(66) 북갑 당협위원장이, 민노당에서는 오창규(42) 전국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북구지회장이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이중행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 광산구청장

“무주공산 자리 내것” 10여명 경쟁

전갑길 광산구청장이 일제갑치 광주시청 출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무주공산’을 차지하기 위한 후보들간 혈투가 벌써부터 치열하다. 거론되는 후보군만 10여 명에 이른 다. 우선 현역 광주시의원 3명 모두 구청장으로 자리를 옮기겠다는 뜻을 품고 있다.

강박원(72) 의장은 ‘의정 프리미엄’을 활용해 각종 행사에 참여,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시장 대변인을 맡고 있는 이정남(53) 의원은 당 기여도에서 유리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유재선(50) 의원은 광산구 인구의 절반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어 경쟁력을 자신하고 있다.

여기에 광산 비아 출신인 이정일 전 서구청장이 최근 광산구청장 후보 경선 도전을 천명했고, 김환규(59) 전 북구 부구청장과 윤봉근(54) 광주시교육위원, 김종오(50) 김대중평화센터 위원,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한 민형배(48) 전 비서관도 민주당 공천 경쟁에 가세했다.

무소속 송병태(71) 전 광산구청장도 출마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당



강박원 72·민 광주시의회 의장, 김종오 50·민 DJ센터 위원, 김환규 59·민 전 북구 부구청장, 민형배 48·민 전 청와대 비서관



유재선 50·민 광주시의원, 윤봉근 53·민 광주시교육위원, 이정남 53·민 시장 상임부위원장, 이정일 63·민 전 광산구청장



조삼수 46·노 광산위원장, 박병현 50·진 전 민노총 본부장, 김범남 61·무 전 광산구청장, 송병태 71·무 전 광산구청장

조삼수(46) 광산위원장과 진보신당 박종현(50) 광주시당 공동대표도 출마가 예상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산=기원태기자 wtkee@kwangju.co.kr

■ 여수시장

오시장 우위속 입지자 10여명 각축



오현섭 59·민 여수시장, 강중 48·민 여수시의원, 김광식 53·민 남해안발전연구소장, 김재철 58·민 여수재향군인회장, 송대수 58·민 전남도의원, 조심람 67·민 전 여수경찰서장, 성해석 57·민 전 여수시의회 의장



김규우 55·한 에프티비(주)부회장, 심정우 50·한 여수물류협회위원장, 김영복 56·노 여수시위원장, 김미정 45·진 여수당협위원장, 김종석 68·무 전 여수시장, 서석주 59·무 전 노총청 여수지회장, 배성기 56·무 한국중부발전 사장

내년 여수시장 선거는 오현섭(59) 현 시장이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0여명의 후보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민중당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입지자는 오 시장을 비롯해 강중(48) 여수시의원, 김광식(53) 남해안발전연구소장, 김재철(58) 여수재향군인회장, 성해석(57) 전 여수시의회 의장, 송대수(58) 전남도의원, 조심람(67) 전 여수경찰서장, 서석주(59) 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장,

배성기(56) 한국중부발전 사장 등이다.

최대 관심사는 무소속 김중석(68) 전 여수시장의 출마 여부다. 또 인물론을 내세우는 배성기 시장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상태이다. 여기에 지난 선거에서 박빙의 접전을 펼쳤던 김광식 시장도 재도전을 내고 뒷발질에 나섰다.

한나라당은 지난 지방선거 출마한 김중우(55) 에이즈퇴치 여수지부장과 심정우(50) 여수를 당협위원장인 거론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양규·박성태기자 ykpark@

■ 순천시장

현시장 등 9명 민주당 공천 다툼

순천시는 노관규(51) 현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한 가운데 이에 맞서 화려한 경력에 맞서 화려한 경력에 맞서 민주당 공천을 향해 뛰고 있다.

노 시장에 맞서 지난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이은(58) 전 해양수산부 차관은 순천·여수·광양 등 3개 시를 통합, ‘제2의 부산화’를 내세우며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해 상당수 득표한 바 있는 조보훈(59) 전 전남도정무부지사는 꾸준히 후보군으로 거론돼 인지도가 높다.

관사 출신인 구희승(47) 변호사는 진보세력과 젊은 층의 기대가 높고 순천고-매산고 대결이 펼쳐질 경우 순천고 대표주자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4선의 박광호(47) 순천시의회 의장과 3선의 박동수(57) 전 순천시의회 의



노관규 51·민 순천시장, 구희승 47·민 변호사, 김철신 51·민 전 도의회 의장, 박광호 47·민 순천시의회 의장, 박동수 57·민 순천시의원



박동수 57·민 순천시의원, 이은 58·민 전 해수부 차관, 조보훈 59·민 전 전남도정무부지사, 허정인 52·민 전 도의회 부의장, 이수근 41·노 순천시위원장

장, 김철신(51) 전 전남도의회 의장과 박동수(57) 전남도의원, 허정인(52) 전 전남도의회 부의장 등도 지역에서 풀뿌리 의정활동을 펼쳐 밑바닥 조직이 탄탄하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또 순천시 총무국장을 지낸 이창용씨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에 맞서 민노당에서는 이수근(41) 순천시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김은중기자 ejkim@

■ 목포시장

정종득 시장 3선 성공 여부 주목

정종득(68) 현 시장의 3선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연 건설업체 CEO 출신인 정 시장은 원도심 활성화, 동북아 물류거점도시 기반 구축에 큰 족적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또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안반도 통합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서남권 발전에 강한 의욕을 내비치고 있다.

정 시장의 대항마로는 장복성(46) 목포시의회 의장과 이호근(47) 전남도의회 부의장, 이상열(57) 전 국회의원, 정영식(65) 전 행정부 차관, 최기동(59) 전 목포시의회 의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장 의장은 세차례 목포시의회 의장을 지낸 경력을 내세우며 지역현안 해결에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관선 목포시장을 지낸 정 차관은 중앙무대에서 활동한 점을 차별화 전략으로 내놓았다. 김홍일 전 의원 보좌관 출신인 최 전 의장과 이 부의장, 이 전 의원도 행보를 넓히고 있다.

특히 목포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치적



정종득 68·민 목포시장, 이상열 57·민 전 국회의원, 이호근 47·민 도의회 부의장, 장복성 46·민 목포시의회 의장



정영식 65·민 전 행정부 차관, 최기동 59·민 전 목포시의회 의장, 정혁우 부위원장, 박기철 44·노 목포시위원장

고향으로 ‘DJ 향수’를 간직하고 있는 곳이어서 내년 목포시장 선거에서도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목포·무안·신안 등 무안반도 통합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통합시장 선출이라는 변수도 잠재해 있다. 그럴 경우 후보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천성복(46) 목포시위원장과 민노당 박기철(44) 목포시위원장이 정 시장에게 도전장을 던질 계획이다.

/*목포=임영춘·이상선기자 ssllee@

■ 나주시장

신정훈 시장 대법원 확정 판결 변수

내년 나주시장 선거는 신정훈(46) 현 시장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6월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은 신 시장은 대법원 무죄 판결을 기대하고 있다. 무죄가 나올 경우 신 시장의 3선 도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 시장의 출마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 시장의 정치적 장래를 고려할 때 본인의 출마는 쉽지 않다.

또 순천시 총무국장을 지낸 이창용씨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민주당 후보군에 맞서 민노당에서는 이수근(41) 순천시 위원장이 준비하고 있다.



신정훈 46·무 나주시장, 강인규 54·민 나주시의회 의장, 김대중 62·민 전 나주시장, 이길선 59·민 전 나주시의회 의장, 임성훈 50·민 나주시의원

군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지고 각종 행사장을 찾아 주민 접촉에 나서는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김 전 시장은 최근 ‘김대동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을 구성하는 등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워 설욕을 다짐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나주 발전의 기제로 혁신도시, 영산강 개발, 마한문화권 형성을 3대 축으로 삼고 뛰고 있으며, 시정에 경영마인드 도입을 기치로 내건 임 대표는 지난 7월 나주에 사무실을 마련, 발로 뛰고 있다.

한편 유력한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김동화 전 전남도 건설국장은 최근 시장 출마 뜻을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kwangju.co.kr